

나이팅게일과 업적

문 회 자

(정희대 간호학과장)

— 목 차 —

1. 출생과 준비기
2. 최초의 지위
3. 크림리아 전쟁에서의 업적
4. 크림리아 전쟁이후의 업적
 - 1) 군대 위생
 - 2) 병원과 간호의 혁명
 - 3) 인도(India)의 위생
 - 4) 나이팅게일 간호학교 설립
5. 기타의 업적
6. 그의 최후

1. 출생과 준비기

William Edward Nightingale과 Frances(Fanny) Smith Florence Nightingale의 둘째 딸로 Italy Florence에서 1820년 5월 12일(160년전)에 태어났다. 출생당시 영국의 명문으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의 양친은 경치와 기후가 좋은 그곳에서 긴 별장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Derbyshire와 Hampshire와 London에서 성장하였으며, 그곳에서 가족들은 안락한 생활을 하였다. 어린시절 그녀는 매우 높은 이상과 신사도를 지키며 딸들의 교육에 관심이 지대한 부친으로부터 광범한 교육을 받았다. 부친은 나이팅게일에게 회랍어, 라틴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역사, 철학, 수학 등을 가르쳐 7세에는 프랑스어로 일기를 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 나라어로 광범한 독서를 할 수 있었다. 그는 소녀 시절부터 병든 자를 돌봐주고 주위의 어려운 자를 방

문하고 동물까지 간호해 주었다.

성숙하여 사교계에 데뷔했으나 사교생활은 일반적으로 그에게 만족스러운 것이 못되었다. 그는 사교계에서 유명하며 유망한 정치적 경력의 소유자로부터 청혼이 있었으나 결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치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1837년 2월 7일에 그가 해야할 임무가 있음을 알게, 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임무가 무엇인가 그후 9년간은 몰랐었다. 그는 마을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를 하면서 배우고, 관찰을 통하여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세계밖에 있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의 시골집인 "리허스트"근방의 방직공장 직공의 기숙사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해학, 음주, 잔인한 행동, 인구의 밀집 등을 목격한 후 음식, 친구, 의복, 약품 등으로 이들을 도왔다.

그는 그의 집 큰 화실을 병실로 만들 수 없을까를 궁리하였다. 1844년 6월 미국의 자선사업가인 Julia Ward Howe와 Dr Howe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생을 간호에 헌신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묻었다. 이를 동정적으로 경칭한 그를 부치는 Florence Nightingale이 간호원이 되기를 원함을 알게 되었고 양친의 반대때문에 전적으로 이 유용한 직업을 갖는 것을 억제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하여 그는 "간호하는 생활을 천직으로 느낀다면 나는 당신에게 하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길 빕니다"고 말했다.

그후 1년 이상이나 그의 부모에게 간호원이 되겠다는 그의 결심을 표현하지 못했으나 숙련된 기술이 있

어야 환자를 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 집에서 몇십리 밖에 있는 샬스베리 요양원에 몇달동안 있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그의 가족들은 크게 노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병원은 비참, 타락, 불결한 곳의 대명사였고 술을 마시는 비도덕적인 간호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값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간호원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졌으며 병원과 공중위생 등에 관한 논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파리에 편지를 보내어 논문을 부탁하기도 하고 베를린 병원에 관한 소식을 얻기도 하였다. 그는 위생 조건에 관한 방대한 지식의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후에 유럽에서는 첫째가는 위생전문가가 될 수 있었으며 영향력 있는 친구들로부터 공증조건과 병원에 관한 전문가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좋지 못하여 친구의 권유에 따라 Rome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각자가 서로의 사업과 생애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Sidney Herbert와의 친교가 시작되었다.

1846년 한 친구가 독일 카이저스 베르트에 있는 선교 여집사 간호단의 년감을 보내왔다. 거기에서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젊은 전국의 여성들에게 병자를 간호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5년후인 1851년 그가 31세가 되던 해에 부모의 양해 하에 독일 카이저스 베르트에 들리더니 목사 내외가 경영하는 여집사 간호단에 들어가 처음 2주 훈련을 받고, 그후 3개월 실습을 했다.

그는 이곳에서 간호원들의 고상하고 순결한 기풍과 헌신을 보았으나 영국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불결과 악취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카이저스 베르트에서의 나이팅게일은 행복했으며 야망에 넘쳐 그곳을 떠났다. 그가 33세 때 결국 그의 어머니는 간호를 평생직으로 택하겠다는 그녀의 결심을 납득하고 그녀를 다시 한번 외국으로 보냈다. 이때 그는 파리에 있는 자선 수녀단의 업무를

연구하였다. (농역에 이환되어 1개월 공부함)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독일 간호 제도들에 대해 해석과 비교표준이 시기에 저술하였다.

2. 최초의 지위

1853년 9월 런던 부인병원의 관리자로서 그가 결정되었다. 그곳에서 그가 이룩한 변혁과 행정은 무척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보다 넓은 분야로 가기를 열망했으며, 1854년 1월 왕립대학 병원의 간호원장으로 초빙받아 옮겨가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을 때 크림리아 전쟁이 발발하였다.

3. 크림리아 전쟁에서의 업적

1854년 3월 크림리아 전쟁이 발발하였다.

영·불 연합군이 크림리아에 상륙하기는 그해 9월이었다. 연합군의 전세는 유리했으나 영국군의 높은 사망율과 부상병을 위한 간호의 소홀함이 보도되자 국민들의 여론은 비판적이었다. 병들고 부상당해 고통받는 영국 군인들의 비참한 상태가 통계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영국국민들은 크게 당황하고 실망했다. 불란서에서는 자선수녀단이, 러시아에선 자비수녀단이 있으나 영국 군인들에게 왜 자선수녀단이 없느냐고 London



Times지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

나이팅게일은 세 사람의 간호원을 데리고 3일내에 콘스탄티노플로 떠날 것을 자원했다. 한편으로 그의 오랜 친구요, 전직 육군대신인 Sydney Herbert로부터 (후에 卿이 될) 보다 많은 간호원을 데리고 떠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 받았다. 그는 Turkey의 Scutari에 있는 육군병원들의 간호에 관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임명은 국민의 주목을 끌었고 그의 어머니와 언니도 광활함에 넘쳐 축하해 주었다.

1854년 10월 21일(이영부 교수는 10월 24일이라 하였음) 40명의 간호원을 인솔하고 영국을 떠나 11월 4일(Encycle, 11월5일)에 Sutari에 도착해 보니 환자로 꽂찬 두 병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10명은 General Hospital에 남도록 하고, 나머지는 반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탁사병원에 있게 되었다. 이는 원래 군인 탁사였는데 그 일부만 부상병의 집으로 쓰고 있었다. 장방형의 건물에 있는 병실은 복도에 바로 열려 있었는데 전체 길이는 4mile이나 되었다.

각 모서리마다 탐이 솟아 있었고 이들 탐 중의 하나에 있는 방들이 간호원들의 숙소였다. 차거운 병실에는 1,8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있었고, 빈대와 이가 들끓었다. 음료수도 모자랐다. 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루 한 사람당 1Pint(영 0.571L, 미 0.471L)만 허용되었다.

불량한 식수공급으로 이질과 열로 고통받았으며 식사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나빴다. 침상열 Table에는 fork도 knife도 없었다. 비야, towel, 비누, 어느것 하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먹이는 일과 피와 배가 물은 더러운 옷을 갈아 입혀야 하는 것이 첫째 문제였다.

간호원들을 맞는 의사들은 냉담하고 격의에 차 있었으며 간호원들이 병실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시간호는 남자 보조수들이 맡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도착한 바로 그날은 Inkerman 전투로 인하여 병들고 부상당한 군인들로 병원은 붐비기 시작했다. 몇월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질을 넘은 요위나 오물로 더러워진 마루바닥에 누워 있었다. 담요, Sheet 등 모든 것이 부족하였다. 게다가 환기도 불량하고 쥐들이 자유롭게 부상병 사이를 돌아다녔으며 조명은 희미한 등불이 달아주고 있었다. 영국측 부상병은 3,000~4,000명

이고 사망율은 42%나 되었다. 이 비참한 혼란의 와중에서 피르에 지친 의사들과 직원들은 Scutari에서 돈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할 수 없음을 깨달은 나이팅게일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다.

(1) 청 소 : 그가 맨처음 한 일은 200개의 솥을 사서 병실을 청소하는 일이며 병실 복도에 널려 있는 오물등의 오물을 비우고 청소하는 일이었다.

(2) 세탁체계 확립 : 들쳐오는 부적당한 세탁체계를 개선하는 일이었다. 그는 탁사밖에 집을 빌려 보일러 장치물을 갖추고 군인 부인들에게 세탁비를 지불하고 맡겼다.

(3) 급식상황 혁신 : 그는 간호원숙소의 침실과 통하는 곳에 부엌과 창고를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새로 만든 주방(세개)에서 중환자를 위하여 식욕을 돋우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식품과 stove를 마련하였다. 나이팅게일은 의사들의 청구에 따라 물품을 내어주는 일을 하였다.

(4) 물품관리제도 확립 : 그가 위급한 물품은 수없이 많았으며 식품, 의류, 칫구류, 세면도구, 의복기구, 이 쪽이는 약에 이르기까지 탁사병원에서 사용하는 전품류는 그에 의하여 관리되어 졌다.

그가 본국에서 떠날 때 30,000파운드를 가지고 갔으며, 그 중 7,000파운드는 개인의 것이었다. 병원 밖에서 물건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친지들에게 편지를 내어 원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간호원들에게 엄한 규칙을 적용하였다.

복종하지 않거나 음주하거나 비도덕적인 간호원은 자기 집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는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 간호에 보냈으며 모든 환자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으며 인간적으로 대하였다.

그는 병원행정 감독자들로 부터 질서와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소신대로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광범하게 편지본(부상군인들의 대필편지도 포함) 썼으며, 수없이 많은 공식,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며 허버트장관에게 보냈다.

그의 환동은 초인적인 것이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그녀 자신을 제외한 어떠한 여자도 병실에 남지 못하게 했다. 밤 간호는 최후기어 있는 일직당번에게 맡겼다. 그는 밤중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았고 개

인면담을 하고 손수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갔다. 그의 사회적 명성이 그와 정책수립가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가능한 관계를 갖도록 해 주었다. 그가 만든 위생 상태에 관한 종합보고는 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할 정도로 영국내 원위자들 사이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사업에 관심을 돌려게 하는, 즉 잡아끄는 비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간호와 식이요법과 그녀의 암시에 따라 일어난 변화들은 약 40%이던 사망율을 1955년 5월 그의 도착 6개월만에 약 2%로 떨어뜨리는 기적을 만들었다. 그는 매일 밤 등불을 들고 환자를 순회했으며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조언을 해 주었으므로 부상병들은 그를 등불을 든 여인 (the lady with the lamp)이라 하였다.

그를 비난하고 비협조적이던 행정관들도 그의 두지와 행정능력에 감탄하여 병원문제 뿐 아니라 군대내 다른 부서의 조직관리에도 자문했으며, 의학실험비치와 군의학교 설치에도 그는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스쿠타리 뿐 아니라 크림미아의 전 병원을 개혁했으며 200여명의 간호원을 채용편시켰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국 군인들의 복지문제였다. 군인들의 휴게소 설치, 군인가족 돕기 운동 전개, 군인의 우편제도 확립, 군인의 저급제도를 실시하였다.

그의 도착 6개월후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영국 해의 원정군의 의무 참모인 존 홀박사가 직접 관리하는 크림미아의 Balaclava에 있는 큰 병원 두 곳을 방문하였다. 그곳 사람들은 적개심과 오만불손한 태도로 그를 맞았다. 그는 그들의 태도를 업무에 두지 않고 특별음식 취사장 설립, 무능한 직원의 해고, 간호술과 병원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했다. 이 격렬한 업무도중 그는 크림미아 열병에 이환되어 빈사상태를 헤메었다.

이 소식을 들은 Scutari의 부상병들은 벽쪽으로 열물을 돌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한다. 그가 회복기에 접어들자 얼마간은 Scutari에서, 얼마간은 Balaclava에서 요양했다. 그를 알고 존경하는 국민들은 그의 귀국을 중용했으나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나이팅게일 지휘하의 군간호는 새로운 위생과학과 함께 건강사업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전쟁중 영국간호단의 일부는 훌륭한 전문적 간호를 하였고, 일부는 그렇지 못했다. 휴간은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하였

다.

1856년 3월 16일 전쟁이 거의 끝날무렵 대 영국정부는 그를 전 영국군간호원 총감독에 임명했다. 1856년 4월 29일 경화가 발표되었다.

8월 이전에 병원은 거의 비게 되었다.

그가 스쿠타리를 떠나기 전에 의료업무 군위생 및 군간호의 전문가가 더 많이 있었다라면 그들의 생명이 구해질 수도 있었던 수많은 군인들이 잠들어 있는 공동 묘지를 찾아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당신네들의 죽음의 원인과 싸우겠습니다”라고 그 자신에게 서약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생애는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바쳐졌다.

4. 크림미아 전쟁이후의 업적

1) 군대 위생(Army Sanitation)

F. Nightingale은 Scutari에 있는 군인 묘소에서 그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후 계속 군대 위생 조건 개선에 몰두했다.

그는 평화시에도 영국군 사망율이 일반인의 2배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1856년 10월 Victoria 여왕, Consort 왕자, Herbert 경의 후임자인 Panmure경과 긴 면담을 가졌다.

그는 후에 여왕과 단독 면담도 가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857년 5월에 군대보건에 관한 최령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857년 “영국군에 관한 일들”이란 책을 사비로 출간하여 배부하였다. 이때부터 예방의학이 중시되었다.

그는 이 책을 보충하여 “평화시나 전시에 있어 군병원에서의 여성간호를 소개하는 책자”를 펴냈다.

그는 전쟁후 16년간의 긴 기간동안 주로 군대 위생 행정 개선을 위한 일에 관심을 쏟았다. 시범 군병원 건축면이나 음료, 난방, 조명, 환기등의 좋지 못한 시설을 바꾸기 위해 군병원이나 탁사를 개조하는데 그의 조언이 받아들여졌다. 그의 노력에 의해 군병원의 식사 및 위생시설이 혁신되었다.

2) 병원과 간호의 혁명

군대 봉사의 결과로 건강이 몹쓸 나빠졌으나 군병원과 마찬가지로 민간병원의 혁신에도 손을 뻗었다.

그는 계속해서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다.

1859년 “병원에 관한 일들(Notes on Hospitals)”을

퍼졌다.

여기서 그는 보다는 병원 환경위생, 보다 정확한 통계, 병동가정관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 간호에 관한 변화된 생각 등을 통한 보다는 병원관리를 맡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

이 책은 병원 개혁을 원하는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권위되었다.

같은 해 “간호에 관한 일들(Notes on Nursing)”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즉시 best-seller가 되었다.

이 책은 가정문제들 중의 하나를 새롭게 취급했기 때문에 영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읽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후에 설립한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여러 나라어로 번역되었다.

3) 인도의 위생(sanitation in India)

1859년 F.N은 인도에 있는 영국군인들의 건강을 위한 일을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20년 이상 인도의 중요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에 열중하였다. 그는 인도인들의 생활조건향상을 위해 영국 국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였다.

인도인의 건강혁명을 위해 런던을 방문한 중요한 인도 관리들과 회합하였다. 위생법규는 점차 제기능을 발휘했고, 순회계몽과 같은 건강혁명에 의해 그들의 생활조건은 향상되어 대도시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지고 전염병이 감소되었다.

그는 인도에 가보지는 않았으나 여러면에서 인도통이였으므로 역대 인도 총독들이 현지 부임에 앞서 그를 찾아 다방면으로 조언을 받았다 한다.

4) 나이팅게일 간호학교

1860년 F.N은 시험간호학교 설립을 통하여 간호 혁



명을 시작했다. 영국 국민이나 정부는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영구히 기념할 수 있는 일을 그에게 주는 것만이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었다.

Herbert 장관의 제의에 따라 간호교육기금 모금운동이 일어나 하나의 사회화 운동으로 전개되어 약 45,000파운드가 모금되었다.

이 자금으로 영국 의사당 건너편 메인즈 강변에 위치한 성토마스병원에 간호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같은 일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학교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최초의 학교였으며, 비종교적으로 운영된 학교였다. 나이팅게일 간호학교 출신들은 세계 각국에서 간호혁명을 일으켰다.

5. 기타의 업적

○ 그는 구빈원 개혁에 한 몫을 담당했다.

그는 구빈원 진료소에 있는 조산원과 간호원을 훈련시켰다.

○ 그는 여성의 참정권을 열렬히 주장했다.

복지사업 후생사업이 정치와 크게 관계 있음을 역설했다.

○ 그는 적십자사 창건에 큰 힘이 되었다.

그의 적십자사 창건의 공로로 1907년 런던의 적십자 대회에서 표창받았다.

15페이지로>

③ 간호원 면허증 소지자로서 양호교사의 자격 결정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으나 ① ②의 간호교육을 마친 자라도 반드시 간호원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간호원 면허를 취득, 불법행위가 아닌 정당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양호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2) ① 교육법 시행령 제38조는 “18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두어야 하며 무의촌의 경우 18학급미만의 경우에도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국민학교에서 학동에 대한 학교보전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학급수의 제한이 아닌 학교마다 학생수의 비례에 의하되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규정화 함이 바람직하다.

②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 제3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에 관한 것으로 “특수교사와 양호교사는 이를 둘 수 있다”의 임의 규정인 바, 이것 또한 학교보전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한 것으로 학교마다 1인 이상을 두도록 의무 규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학교보전법관계에서 직원의 직무에 관한 규칙(문교부령 제266호)을 보면 학교의 연간, 월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과 학생의 보건교육지도 내용작성 및 교내의 보건교육지도 그리고 보건교육에 관한 일반교사의 지도 조연에 관한 직무를 체육(주임) 교사에게 주워지고 있으며 양호

교사는 학교보전관리계획의 수립을 보조하도록 명시하여 학교보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학교보전에 관한 직무는 당연히 양호교사에게 주워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급교에는 양호교사를 전원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III

이상 문교행정의 기본이 되는 교육법을 중심으로 하여

- 1) 국립 간호교육기관의 확충
- 2) 교육의 계속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3) 대학 편입학에 대한 정원 확충과 해당 학과의 확대
- 4) 양호교사의 배치 의무화 및 양호교사의 임무로 학교보전의 증진도모 등 4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개진하였다.

각자의 법 해석에 따라 비판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체제적인 것만을 다루어 보았다.

앞으로 산적된 간호교육에 대한 제반법적문제 해결을 위하여 계속적인 우리 자신의 노력과 참여가 요구된다.

<29페이지에서>

6. 그의 최후

1857년부터 F.N은 허약한 몸으로 주로 London에서 살았다. 그녀의 시신왕례는 광범위 했으며, 해가 바뀌도록 침상에 누워 최고위층에서 부터 최하위층에 이르는 수 없이 많은 방문객을 맞았다.

F.N은 어떤 장기(organic illness)의 질환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의 허약함은 부분적으로 신경성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의도적이었다고 Encyclopædia Britannica는 말하고 있다.

이 확실한 전락으로 그는 쉽게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시력이 점차 약해져서 1901년에

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1907년 국왕은 그에게 메리트훈장(order of merit)을 수여하였다. 그 훈장을 받은 최후의 여성이었다.

F.N은 1910년 8월 13일에 90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그의 장례를 국장으로 국가적 공훈이 있는 사람의 장지인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안치하려는 계획은 그의 생전의 유언에 따라 정중히 거절되었다. 그의 관은 여섯명의 영국군 하사에 의해 그가 어린시절을 보냈던 마을 Hampshire의 East wellow 교회뜰에 있는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로써 그의 영화롭고 뜻 깊은 일생은 막을 내렸으나 보이지 않는 그의 정신과 업적은 오늘 그를 따르는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다.